Avantgarde Acoustic
ZERO TA X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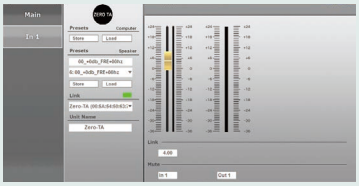
아방가르드 어쿠스틱이 완성한 또 하나의 제로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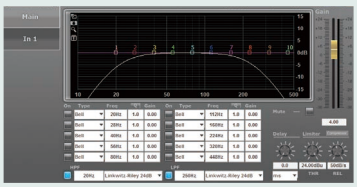
글 | **장현태**

하이엔드 스피커 브랜드 중 혼을 결합하여 미적인 감각과 아날로그적인 음악성을 가장 돋보이게 만들어낸 곳을 언급하라면, 누구든지 아방가르드 어쿠스틱을 이야기할 것이다. 독일 브랜드로 1991년 창립된 동사는 혼을 중심으로 독창적인 디자인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방가르드만의 스피커 철학을 만들어 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버전의 우노 시리즈와 듀오 시리즈, 플래그십 모델인 트리오 등을 출시하며 혼을 통해 아름다운 예술품의 이미지를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새로운 콘셉트로 탄생된 제로 시리즈는 슬림 디자인과 새로운 기술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혼 스피커의 모습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목을 집중시킨 라인업이다.

제로 시리즈는 그동안 제로 1을 시작으로, 제로 1 프로, 제로 1 XD로 출시되었는데, 이번에 소개할 제로 TA XD는 풀 액티브 방식인 제로 1 XD에서 베이스만 액티브 방식을 적용한 모델로, 기존에 아방가르드 어쿠스틱이 추구해왔던 액티브 베이스 방식과 동일하다.

사운드 성향은 우선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좋다. 장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편성곡에서의 완급 조절과 일체감이 상당히 세련되어 있다. 드럼과 베이스가 강조된 팝의 경우는 내장 앰프를 통한 저역의 울림이 중·고역 혼의 자연스러운 성향과 어울리도록, 에너지를 강조하기보다는 12인치 우퍼를 통해 잔잔함과 깊이 있는 표현력이 중심에 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장착된 드라이버와 내장 앰프의 성능이다. 우퍼는 12인치인 30cm 사이즈가 적용되어 대형기의 역량을 자랑하며, 2.5cm 트위터에는 13cm 혼을 장착하였다. 소프트 메시 컴파운드 멤브레인이 적용된 12.5cm 미드레인지의 경우는 40cm 혼을 적용하였으며, 독립적으로 밀폐된 인클로저 공간으로 제작되어 명료한 중역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혼을 통해 104dB의 높은 SPL을 제공함으로써 디스토션 없는 자연스러운 음의 확산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로 1 XD와 달리 저역용 서브우퍼만 500W 클래스 D 앰프가 내장되어 있으며, DSP가 빌트인되어 있어 별도로 세팅을 컨트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로 시리즈 특유의 디자인과 독특한 캐비닛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드한 일반적인 분리형 혼 스타일들을 과감히 탈피, 완전히 새로운 일체형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디자인적으로 폭은 넓고 뒤쪽 깊이가 슬림한 타입인데, 하단에 각도를 가진 일체형 스탠드를 부착, 마치 고급 소파의 지지대를 연상케 한다. 전체적으로 깔끔하

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어떤 인테리어 공간에도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완성되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형 혼 2개와 저역용 우퍼가 아래에 배치된 일체형 스타일이라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완성되어 있다. 전면과 후면 배플은 별도의 ABS를 사용한 사출 성형 방식을 적용하여 결합하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곡면 라인이 혼의 일체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나무나 스틸 가공으로는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것으로 사출 구조로만 만들어 낼 수 있는 디자인이기도 하다. 내부는 진동과 공진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릭스 리브 구조를 적용, 견고한 구조의 캐비닛으로 완성되었다.

보컬 곡으로 제이슨 므라즈의 'Butterfly'를 선곡해 보았다. 이 곡에서 가장 먼저 인상 깊게 다가오는 부분은 저역 반응인데, 강력한 임팩트를 중시하기보다는 양감이 많고 여유 있게 펼치는 스타일이다. 중·고역은 별도의 앰프로 구동되기 때문에 앰프에 따라 차별화된 성향을 가지게 되는데, 이번 리뷰에서는 플리니우스 풀 시스템과 조합했다. 이들 매칭에서는 지나친 투명도나 디테일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중·고역의 밸런스를 만들어 내었다.

실내악곡은 브람스 첼로 소나타 1번 중 2악장을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와 루돌프 제르킨의 피아노로 선곡해 보았다. 첼로의 통 저음은 깊고 중후한 넘치는 에너지로 전달되었고, 피아노는 한발 물러서 조금은 소극적인 부분은 있지만, 오히려 반주 악기의 영역이기에 아쉬움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리듬감과 대화하듯 펼쳐지는 소나타의 조화는 브람스적 회상에 잠기게 만드는 중후함이 돋보였다.

대편성곡으로 베토벤 교향곡 7번 중 3악장을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청취해 보았다. 현악 파트와 목관 파트의 표현력은 좋고, 무대가 넓게 펼쳐진다. 반면 팀파니의 임팩트는 과하지 않으며, 혼 타입인 것을 고려하면 금관 파트는 개방감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디테일이나 명료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무대 전체의 윤곽을 한 번에 그려내는, 인위적이지 않으며, 분해력보다는 조화의 묘미가 돋보인다.

사운드 성향은 우선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좋다. 장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편성곡에서의 완급 조절과 일체감이 상당히 세련되어 있다. 드럼과 베이스가 강조된 팝의 경우는 내장 앰프를 통한 저역의 울림이 중·고역 혼의 자연스러운 성향과 어울리도록, 에너지를 강조하기보다는 12인치 우퍼를 통해 잔잔함과 깊이 있는 표현력이 중심에 있다. 특히 관악기들의 울림에서는 아방가르드 혼의 매력이 더욱 강조되어 있다. 고역의 치밀함이나 디테일보다는, 오히려 순화된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재생능력을 지니고 있다.

아방가르드 어쿠스틱의 제로 TA XD를 통해 다시 한 번 제로 시리즈의 사운드 성향과 방향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혼을 통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아름다운 디자인과 더불어 사운드적으로 잘 정돈된 모델이다. 특히 중·고역을 별도의 앰프로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사운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며, 높은 SPL을 가진 드라이버 성능으로 앰프 선택의 폭도 무척 넓다.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아방가르드 어쿠스틱이 추구하는 사운드 철학을 경험할 수 있는 주력 기종으로 손색이 없다. 《A》

수입원 태인기기 (02)971-8241

가격 1,650만원 **사용 유닛** 우퍼 30cm, 미드레인지 12.5cm, 트위터 2.5cm **주파수 응답** 250Hz-20kHz(새틀라이트), 18Hz-350Hz(서브우퍼) **감도** 104dB 이상/W/m **임피던스** 8Ω **권장 앰프 출력** 10W **서브우퍼 출력** 500W(120dB, 0.05%) **크기(WHD)** 49×104×31.8cm **무게** 39kg